

開成町から新たな国際交流の創造に向けて

～「東アジア文化交渉学会 in 開成」の開催～

2015年1月1日
日本国神奈川県開成町長
府川裕一

新年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2015年が始まりました。この地球上の全ての人々にとって今年が平和で実りある年であることを心より祈念いたします。

日本の象徴、神々が宿る霊峰富士山。その富士山に降り注いだ雨は一つの流れとなり酒匂川となって足柄平野を形成しました。太古の昔より営々と続いた自然の営みの恵みです。その平野のほぼ中央に位置するのが開成町です。面積はわずか6.5km²。まるで豆粒のような小さな町です。この小さな町から世界に向けて大きな発信を今年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東アジア文化交渉学会という高名な国際学会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期待感に胸が高まります。

開成町の住民が中心となっている民間の郷土史研究グループ「足柄の歴史再発見クラブ」が衝撃の事実を解明しました。300年前の1707年12月霊峰富士山が牙をむき、大爆発を起こしました。開成町一帯は、大噴火の砂とその後の大洪水によって壊滅的打撃を受けました。しかし先人たちは血のにじむような努力によって見事に再興させました。大災害の後に神社を建てて安寧を祈りました。祭神は文命（以降、禹王と表記）でした。中国の治水神がなんと酒匂川の治水の難所に祀られていたのです。足元に中国との深いつながりが隠されていました。

研究は大きな広がりを持ち、禹王に関わる遺跡が日本全国各地に残っていることを解明しました。2010年11月に関係者が一堂に会し開成町で第一回禹王サミットを開催できました。足元の歴史を見つめ直し中国の治水神、禹王とのつながりを再発見したことから今や中国の民間禹王研究グループとの交流にまで発展しています。日中双方の民間研究者が、互いの地域の文化を尊重し認め合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と高く評価しています。

開成町としては、今回の東アジア文化交渉学会は、以上のような民間の禹王研究の成果を内外に発表する貴重な場になると捉え誘致することを決断しまし

た。むろん学会では禹王研究にとどまらず広範な視野からの東アジア地域全般の文化交流に関わる研究成果が発表されます。禹王研究と東アジア文化交流学の発展がどう結びついていくか大いに期待しています。

学会には、中国を始め香港、台湾、韓国、欧米からの研究者が参加されると伺っています。外国人研究者と開成町や近隣市町の住民とが触れ合うことは、新たな国際交流の礎となります。2020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開催を控え真の国際文化観光の先取りと位置付けています。世界遺産、富士山にほど近い絶好のロケーションでの国際学会は外国人研究者にとって心躍る催しとなるに違いありません。

2015年は、開成町の町制施行60周年です。この記念すべき年に国際学会を開催できることはこの上ない喜びです。町を挙げておもてな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た、2015年は、日中戦争、太平洋戦争に日本が敗れてから70年の節目の年です。学会開催が、日中友好はもとより東アジアと世界の平和に向けて互いの友好を確認する場となるよう精一杯取り組んで参ります。

また東アジア文化交流学会と開成町との共同作業は、新たな学会の在り方を提起する試みと考えています。学会を学術研究者だけの研究発表の場として捉えるだけでなく地域と一体となり地域に根差した学会の持ち方を示す機会になるからです。地域とともに発展する東アジア文化交流学会の輝かしい未来を発信する場となると確信し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東アジア文化交流学会の会員各位のご多幸を改めてお祈り致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Creating a New Form of International Interaction from
Kaiseimachi: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in Kaisei

January 2015
Fukawa Yūichi
Mayor of Kaiseimachi
Kanagawa Prefecture

Happy New Year! The year 2015 has begun. I offer my heartfelt wishes for a peaceful and fulfilling year for everyone around the world.

The symbol of Japan: the sacred Mt. Fuji, home of the gods. The rain that has poured down on Mt. Fuji became the stream that is the Sakawa River, which forms the Ashigara Plain. This is a gift of the workings of nature that have continued tirelessly from time immemorial. Kaiseimachi is situated nearly in the center of that plain. The area is a mere 6.5 km.² It is a tiny town. It turns out that this small town is sending out a big message to the world this year. Kaiseimachi will be the venue for the renowned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ed the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We are filled with anticipation for the event.

The non-governmental local research group called Ashigara History Rediscovery Club, which is mainly comprised of the residents of Kaiseimachi, discovered an incredible fact. Three hundred years ago, in December 1707, sacred Mt. Fuji roared and caused a great eruption. The Kaiseimachi region received a fatal blow from the ash of the volcanic eruption and subsequent great flood. Yet through the toil of our forefathers, the town made a remarkable recovery. After the disasters, they built a shrine and prayed for well-being. The deity enshrined is Bunmei (hereafter referred to as Yu the Great). That is, the Chinese god of flood control amazingly ended up being enshrined in the dangerous flood zone of the Sakawa River. A deep connection between China and Kaiseimachi had lain hidden right beneath our feet.

Our research expanded; we discovered that relics of Yu the Great were extant in many areas throughout Japan. In November 2010, those involved

in the research met together in a hall in Kaiseimachi to hold the first Yu the Great Summit. After reexamining our local history and rediscovering its connection with China's god of flood control, Yu the Great, we even began interacting with a non-governmental research group in China on Yu the Great. The fact that our two groups of private researchers in Japan and China respect and recognize each other's regional cultures has achieved wide acclaim.

Kaiseimachi determined that the Society for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would be an invaluable forum to present local and external papers on such private research on Yu the Great. Of course, the Society does not limit its research to Yu the Great, but presents overall research related to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from a wide variety of perspectives. We have great hopes fo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on Yu the Great with the wider study of cultural interaction in East Asia.

I have heard that scholars will be participating not just from China, but from Hong Kong, Taiwan, Korea, an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teraction between foreign scholars and the citizens of Kaiseimachi and surrounding towns and cities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new international interaction. This places us in an advance position as a site for true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ahead of the 2020 Tokyo Olympics. We are certain that no more perfect location could be found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an a venue so close to Mt. Fuji, a world heritage site, and that scholars from overseas will find it an exciting event.

This year, 2015, marks the sixtieth anniversary of Kaiseimachi becoming a township. There is nothing more gratifying than hol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is memorable year. We will call on the entire town to provide hospitality. This year also marks the seventieth year since Japan lost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We will strive to make the conference venue a site for Sino-Japanese friendship and to confirm mutual friendship to further peace with East Asia and the world.

We also believe that Kaiseimachi's and the Society for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s joint sponsorship of this conference is an experiment in new conference formats. This conference will not simply be a venue for presentations of academic research by professional scholars but an

opportunity to find a way to unite a local area and a conference rooted in such a regional location. We are confident that Kaiseimachi will provide a locale for promoting a bright future for both our local area and the Society for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Finally, we again wish all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for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good fortune. Thank you.

从开成町迎来并开创崭新的国际交流

——“东亚文化交涉学在开成”的召开

2015年1月1日

日本国神奈川县开成町长

府川裕一

诸君新年快乐！2015年，新年伊始，在这里，我衷心地祝愿，祝愿全世界的人们，能够度过和平安全、收获满满的一年！

富士山，日本的象征，众神寄居的妙峰灵山！富士山上的降水，汇流成川，形成了酒匂川，冲击成原，形成了足柄平原。自遥远的上古时期，便饱享着大自然延绵厚重的恩惠。开成町，就坐落在这片沃野平原的正中央。面积仅 6.5 Km²，如豌豆般大小的小城。新年伊始，这座小城向全世界发出了信号。享有盛誉的国际学会东亚文化交涉学大会在这里召开，真是令人期待满怀！

以开成町民众为核心，组建了民间乡土史研究团队“足柄历史再发见俱乐部”，他们探明了历史的沧海桑田。300多年前，1707年12月，灵山妙峰富士山吐露獠牙，火山大喷发。开成町一带，遭遇了毁灭性打击：滚烫的火山岩浆与随后汹涌而至的大洪水夺走了一切。然而，经过先人们的浴血奋战，家园奇迹般地复兴了。大灾难之后，建立了神社，以祈祷安宁。祭神为文命（以降，表记作“禹王”）。在酒匂川的灾区祭祀中国的治水神灵，从根底流露出与中国的密切关联。

随着研究的全面展开，我们发现禹王的遗迹遍布日本全国各地。2010年11月，相关人等齐聚一堂，召开了第一届禹王峰会。从重新发掘地下的历史，再度审视与中国治水神灵禹王的关联，时至今日，与中国的民间禹王研究团体开展国际交流。日中两国的民间研究者，在彼此尊重认同地域文化的基础上，进行密切交流，赢得了很高的评价。

为搭建向学界内外发布上述民间禹王研究成果的宝贵平台，以此为契机，开成町果断决定承办本届文化交涉学年会。当然，学会并不局限于禹王研究，更有东亚地区文化交涉相关的各方面研究成果发表。由衷期待禹王研究与东亚文化交涉学紧密结合，取得更大，更长足的发展。

本届学术大会，日本国内各地学者自然是不必说了，还有来自以中国为代表，香港、台湾、韩国、欧美等国家和地区的研究者参加。外国研究人员与开成町及周边城市居民接触交流，为崭新的国际交流奠定基础。可以说，是为2020年东京奥运会召开之际，更广泛的国际文化交流打头阵。毗邻世界遗产富士山，在这一绝佳的地理位置举办国际学会，对于外国研究人员来说，无疑也是一件欢心鼓舞，意义非凡的盛事。

2015年，适逢开成町建町60周年。在这个具有纪念意义的年份里，国际

学会的召开，的确是一件无与伦比的喜事。我们将倾城以待。此外，2015 年，又是日中战争，太平洋战争日本战败 70 周年，本届学会的举办，不单是为了日中友好，也是为了东亚与世界的和平，搭建彼此友好的桥梁，我们将积极参与，全力以赴。

东亚文化交涉学年会，作为开成町的共同事业，我们一直在思考，努力尝试全新的学会举办方式。不仅仅将学会作为学术研究者发表研究成果的平台，更创造了一次展示学术与地域相融合，学术接地气的机会。相信伴随着地域的发展，东亚文化交涉学大会一定会迎来更加光辉灿烂的未来。

最后，衷心祝愿本届东亚文化交涉学大会的各与会人员，幸福安康！谢谢！

가이세이마치(開成町)에서 새로운 국제교류의 창조를 향하여

~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i n 가이세이」의 개최~

2015년 1월 1일

일본 가나가와켄 가이세이마치장
후가와 유이치(府川裕一)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있어 평화롭고 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본의 상징 신들의 영봉 후지산, 이 후지산에 쏟아져 내린 비는 하나의 줄기를 이루며 사카와강이 되고 아시하라평야를 형성하였습니다. 태고로부터 이어온 자연의 은혜입니다. 이 평야의 중앙 부근에는 가이세이마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면적 6.5 km²의 자그마한 마을로 이 마을이 올 해 세계를 향한 발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라는 고명한 국제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가이세이마치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간향토사 연구그룹인 ‘아시하라 역사재발견그룹’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300여년전 1707년 12월, 영봉 후지산이 적의를 드러내며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일대는 분화재와 뒤이은 대홍수로 참담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인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마을을 훌륭하게 재건하였습니다. 재해 후 신사를 건립하여 문명 우왕을 제신으로 모시고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중국의 치수신이 사카와강의 치수의 난소(難所)에 모셔졌던 것입니다. 그 근처에는 중국과의 깊은 유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광범하게 일본 전국 각지에 우왕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음을 해명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이세이마치에서 제 1회 우왕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시하라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중국의 치수신 우왕과의 관련성을 재발견한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중국의 민간우왕연구그룹과의 교류까지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양국의 민간연구자가 서로 간의 지역문화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길로 나아갈 것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가이세이마치로서는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가 위와 같은 민간의 우왕연구의 성과를 안팎으로 알리는 귀중한 장이 될 것으로 여겨 유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학회에서는 우왕 관련연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문화교섭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됩니다. 우왕연구와 동아시아문화교섭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게 될지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 학회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홍콩, 대만, 한국, 유럽의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연구자와 가이세이마치 및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국제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참된 국제문화관광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세계유산 후지산 부근의 절호의 위치에서 열리는 국제학회는 외국인연구자들에게 있어 설레고 의미있는 개최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015년은 가이세이마치제 시행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 기념적인 해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온 마을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5년은 일중전쟁,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학회의 개최가 일중우호는 물론이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서로 간의 우호를 다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와 가이세이마치의 공동작업은 새로운 학회의 양식을 제안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만의 발표가 아닌 지역과 일체가 되어 그 지역에 뿌리를 둔 학회라는 색다른 진행방식을 보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의 밝고 빛나는 미래를 널리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의 회원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